

공공도서관 관련 교양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 '우리 모두의 장'으로서 공공도서관 알아차리기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beral Arts Subject Related to Public Libraries: Knowing Public Library as a Commons

한 만 성 (Mahnsoung Han)*

초 록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공공도서관이 가진 '우리 모두의 장(공통장)'의 특성을 최대한 발견한 학습 구성요소 설계 및 대학의 일반교양 과목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 구성이다.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문해력 향상의 연습장이자, 디지털 공유문화의 체험장, 차별 없는 모두의 학습장, 메이커 운동의 작업장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의 거점으로서 '우리 모두의 장'의 성격을 두루 갖추고 있다. 연구자는 다양한 문해력 이해, 정보활용능력의 정보윤리, 공동체 의식 및 다문화 이해, 공공의식과 협동정신 및 컴퓨터 활용능력, 학제적 지식 및 통합적 안목과 시각 등을 학습 구성요소로 설계하고 '공유문화와 지역도서관'이라는 명칭의 과목을 개설하였다. 이러한 공공도서관 관련 융합 교양 교과는 지역 및 공공성의 위기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널리 확산하고 실제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체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도서관의 인지도 및 이용률 향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ons for all' related to public libraries as much as possible, design the learning content, and finally to demonstrate whether the contents meet the general education requirement of universities. The public library is a study hall for multi-literacy, a common place for lifelong learning without discrimination, a place for experiencing digital sharing culture, a place for practicing public architectural design for community regeneration, a workshop for the maker movement and finally, a hub for forming local communities. In short, it has all the characteristics appropriate to being a commons. This subject titled "Sharing Culture and Local Libraries" is designed and composed with various literacy understanding, information ethics of information literacy, community consciousness and multicultural understanding, public consciousness, cooperative spirit and computer utilization ability, interdisciplinary knowledge, and integrated perspective. In a situation where the regional and public crises are increasing, this kind of general education subject about public library,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raising the awareness of the library and further enhancing the local community togetherness spirit by spreading the value of the library widely to students and inducing them to actually experience various library services.

키워드: 공통장, 공공도서관, 교양교육, 정보윤리, 지역공동체, 우리 모두의 장
Commons, Public Library, General Education, Information Ethics, Local Community

*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fusionpd@woosuk.ac.kr)

논문접수일자 : 2023년 5월 14일 논문심사일자 : 2023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자 : 2023년 6월 1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2): 33-57, 202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2.033>

※ Copyright © 2023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공공성의 위기와 도서관 일반교육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도서관의 가치를 강조하는 문헌정보학 고전에서 '사서는 건전한 일반교육이나 교양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Shera, 1970, 127). 어떤 지역사회든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사서는 그곳의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전반적이고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전공지식만으로는 충분히 달성되기 어렵다. 이 사실은 문헌정보학을 가르치는 교수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전공과 함께 교양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공공도서관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강조할 것도 없다시피 공공도서관이란 각 지역의 지식정보 관문이자 지역공동체 문화를 창조하는 촉매로서 민주사회의 필수기관이다. 또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나이, 민족,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모두를 위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전통적 책자로부터 디지털 자료까지 상업적, 기술적 또는 법적 제한 없이 다양한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의 원리가 방치되면서 위축되는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보루이다.

공공도서관이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공공기관이라면, 오늘날 일컫는 신자유주의가 불러오고 있는 부작용 및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공통장(communs)'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사회혁신과 전환의 유력한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통장'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대안 담론으로 소환되어 인문사회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주목받고 있다(권범철, 2020; 이영배, 2022; 정영신, 2020; 조정환, 2022). 바로 국가 주도나 시장 지향이 아닌 제3의 영역, 제3 부문, 혹은 제3 섹터를 뒷받침하는 철학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물의 상품화에 대항하면서 지구 생태계에 대한 관리자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통장'에서는 특히 지역, 참여, 포용, 공정성의 가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한다(Bollier, 2021, 6). 이는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사회적책임원탁(Social Responsibility Round Table)이 2017년에 채택한 '공정, 다양성 그리고 포용'(이상복, 2021, 112)이라는 진보 성향의 문헌정보학 전략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이 가진 '공통장'으로서의 성격을 최대한 발견하고 조직함으로써 대학의 일반교양 과목 내용으로 편성하고자 함이다. 부차적인 목적으로, 'commons'의 원어 표기가 갖는 몇 가지 문제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조망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우리 삶과 대부분 관련되어 학제적인 접근이 가능한 '공통장' 이론과 공공도서관의 실재를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학습 내용을 설계한다면 공동체 의식 및 공공정신을 함양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고자 하는 대학의 교양교육 목표와도 조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통장' 관련 선행연구를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할 것이다(2장). 3장에서는 '공통장', '커먼스', '공유지'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한국의 논의를 일별한 후, '우리 모두의 장'이라는 대안적 역어를 제시하면서 '공통장'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앞선 두 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유문화와 지역도서관'이라는 과목에 적절한 강의 설계 내용을

6가지 소주제로 정리한 뒤 주별 학습계획표를 예시로 제안한다(4장). 5장에서 연구의 한계점과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정보공유공간에서 학습공유공간으로

선행연구 대상은 '공통장(communs)'을 열췁 말로 삼아 제목 또는 주제어 검색으로 선정하였다. 편의상 2장은 '공공도서관' 또는 '도서관'과 함께 '공통장'을 다룬 논문을 위주로 검토한 후 정리하였다.

정재영(2007a; 2007b)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지에 가장 먼저 본격적인 '공통장' 도입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 개념 및 도입 필요성을 심도 있게 정리하고,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로서 직접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모형까지 제시하였다. 정보공유공간을 "도서관의 정보와 인력을 바탕으로 참고서비스와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이용자들의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통합 이용자서비스 공간(정재영, 2007a, 70)"으로 정의하였는데,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해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내부 이용자들의 공동체 형성 및 문화 공간으로까지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학교도서관에도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이용자 중심공간을 지향하는 정보공유공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정재영, 2008)와 전통적인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도서관 구현을 위해서도 '정보공유공간'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정재영, 2009)까지 연속

적으로 '정보공유공간'을 소개하면서 관련 연구를 촉발하였다.

정미경과 남태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유형별 개념을 소개하면서 '정보공유공간'의 핵심개념을 "디지털 자원과 도서관 공간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 혹은 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정보공유공간, 정보통합센터, 인포메이션 코먼스 등으로 쓰이고 있는 국내 연구 실정에서 명칭의 확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정미경, 남태우, 348).

이상복 외(2009)는 원래 대학도서관에서 도입한 개념의 '정보공유공간'을 한국의 공공도서관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뒤 향후 실증적인 공공도서관 맞춤형 '정보공유공간' 모형에 관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특히 '정보공유공간'이라는 추상적인 용어가 함의하는 철학적이고 시대사상인 개념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 이론 연구의 필요성 또한 부각하였다.

임형연(2013; 2014; 2015; 2020; 2021; 2022)은 아마도 '정보공유공간'을 공공도서관과 연결하여 가장 지속적이고 활발히 연구 논문을 생산한 연구자로 보인다. 주로 일본의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시대적 변화 및 이용자 요구에 맞추어 '정보공유공간'으로부터 '학습공유공간(Learning Commons)'으로 변모해 나아가는지를 일관성 있게 탐구하면서 '공통장(커먼스)'의 다면적인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임형연(2014, 443-444)에 따르면 일본의 공공도서관은 이미 '정보공유공간'을 넘어서서 '학습공유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정보공유공간이 디지털 매체를 포함하는 정보 이용에 초점을 둔다면, 학습공유공간은

도서관 본연의 사명인 학습에 초점을 둔 공유공간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 공공도서관에서 ‘학습공유공간’을 분석할 수 있는 틀로서 “1) 물리적 공유공간, 2) 정보적 공유공간, 3) 문화적 공유공간, 4) 외부기관과의 학습지원 협력 네트워크”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임형연, 2014, 451). 이렇게 일본의 공공도서관이 진화하는 배경에는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지역의 소멸 위기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맞서 평생학습의 터전이자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 변신하고자 하는 일본공공도서관 사례(임형연, 2021: 2022)들은 ‘공통장’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주목을 요한다. ‘학습공유공간’의 시각으로 이용자를 도서관 서비스의 기획, 운영, 발전에 참여하는 주체로까지 바라본다는 점(임형연, 2022, 84) 또한 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도서관에 큰 시사점을 준다.

정진수는 학교도서관에서 정보와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의미 있는 학습을 추구하는 데 적절한 개념 틀이 바로 ‘학습공유공간’이라고 하였다. “물리적/가상적 코먼스, 풍부한 정보 및 최신 기술, 그리고 참여공동체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역동적 관계를 상징화한 것(정진수, 2016, 371)”으로 정의하면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의 초점이 정보열람과 접근보다 학습에 맞춰줘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추이를 개괄하면, 도서관 관련 연구에서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으로부터 출발한 ‘공통장(Commons)’의 적용 비중이 ‘학습공유공간(Learning Commons)’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분야는 도서관 공간설계 영역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연구자가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관련 교양과목

내용 요소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공통장’이 함의하는 시대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지혜와 사회과학적 통찰의 도움을 받는 학제적 접근이 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3. ‘우리 모두의 장’으로서의 공공도서관

3.1 ‘커먼즈’라는 개념어 번역 문제

2장에서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정보공유공간’과 ‘학습공유공간’이라는 번역어를 일관성 있게 표기하였으나 각 논문에 표기된 실상은 그렇지 않다. ‘Information Commons’를 그대로 노출한 논문도 있고 ‘인포메이션커먼스’, ‘러닝코먼스’처럼 원어의 음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한 경우, ‘정보공유공간’, ‘정보공유지공간’, ‘학습공유공간’으로 번역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Information Literacy’나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번역어 표기에서 혼돈을 보였던 현상과 유사해 보인다. 한국문헌정보학사전(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10)에서 ‘정보활용능력’을 채택하였으나 이후에 발표되는 논문들이 다 이를 따르지는 않았고, 지금도 영문 두문자어 또는 한글을 발음기호 삼아 표기하기를 선호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한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작성되어 발표되는 논문이라면 일단 국내 연구자 또는 관심 있는 일반인이 독자로 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용어의 쓰임새가 토착화되어 두루 통하게

된다면 학제 간 연구에서도 소통이 더욱 쉬어질 것은 분명하다. 검색에서 선정되는 제어어휘로서 외국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학문이 자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다. 순우리말 학술용어 다듬기가 지극히 어렵다면, 한자어로 된 번역어가 차선책이다. 전통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 한국어의 그물망을 형성함으로써 학문의 주체성을 담보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어는 컴퓨터 언어와 같아 지식과 의식의 깊이를 연결하려는 노력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통일된 학술 연구의 장(場)에서는 우리말 전체가 학문으로부터 소외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지적 활동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황현산, 2018, 143-144)는 인문학자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Commons'의 문제가 지금 그러해 보인다.

정영신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에서 '공통장' 담론이 부상하게 된 여섯 가지 원천이 있는데 이는 이론적· 학술적인 원천, 기술혁신 및 인터넷 확산, 사회적· 정치적 조건의 변화 등이다(정영신, 2020, 239-242). 첫째 원천은 잘 알려진 바처럼,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이다(Hardin, 1968). 바로 개인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적 공익과 충돌하는 난제의 하나로 등장하면서 학술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둘째 원천은 산림자원, 어장 자원, 수자원 등 공통자원에 관한 인류학· 사회학적 연구들이다. 이는 세계 각 지역공동체가 민주적인 결정에 따라 성공적으로 공통자원을 관리했다는 사례를 보고함으로써 Hardin의 논문을 반박하는 성과를 내었다. 상반되는 두 가지 흐름을 종합하여 공통장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치 연구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Ostrom이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주목할 바는 그녀가 지식정보의 영역까지 공통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연구를 주도하고 그 성과를 편집한 바 있다는 점이다(Hess & Ostrom, 2007).

문헌정보학계에서 '정보공유공간', '학습공유공간'으로 일컫는바, 정보나 지식의 공통장 연구의 원천은 바로 셋째 흐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술 혁신으로 인한 인터넷의 확산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공통장'은 공동으로 소유한 자원을 관리하는 사회적 체제인바, 이러한 체제 속에서 '공통인(commoners)'은 소유권을 사적 용도 또는 영리 거래에서 실제로 행사하기가 어렵다. '공통장'의 덕택으로 '공통인'은 자유 시장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공 혹은 집단적 존재의 속성을 띠게 된다(Hyde, 2011, 43). 바로 지식재산권의 과도한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창의적인 지식 확산이나 예술 창작의 공유 및 협력을 유도하려는 '학술논문 공개정책(Open Access)'이나 '저작권 이용표시 허락제도(Creative Commons License)'의 출현 배경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다섯째 원천은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제3의 대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로 유럽 사상사에서 맥락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크게 자유주의자와 개혁주의자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와 시장의 영역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제 3지대로서 '공통장'을 추구하며 개혁주의자들은 '공통장'의 영역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시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협력 실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 여섯째 원천은 '공통장'을 반자본주의의 언어로 이해하는 급진주의적 전통과 연결된

다. 바로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과 밀접히 연관되어, 새로운 사회적 주체의 관점에서 착취와 저항의 새로운 근거를 밝히고자 자본주의의 기원 및 이행 과정을 탐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Federici, 2004, 27)의 흐름이다.

이렇게 여섯 갈래 흐름으로부터 급부상 중인 '공통장'의 번역어 표기 문제에 대해 '커먼즈'의 의미에 대응하는 역사적·현대적 후보들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 필요성을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들며 잠정적으로 '커먼즈', '공동의 것', '우리 모두의 것'을 함께 사용한다고 하였다(정영신, 2020, 244). 번역어에 대한 연구자들의 학제적 합의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공유자원, 공동자원, 공통자원 등으로 번역하는 것은 커먼즈가 자원뿐만 아니라 제도 및 이용자 공동체 사이의 복합체로 존재하며 커먼닝이라는 실천을 통해 결합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며, 개발주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공유지나 공유재로 번역하는 것은 커먼즈의 공동적 소유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논의는 커먼즈의 '전통적' 성격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커먼즈가 새롭게 제기되는 현대적 맥락을 무시하게 만든다.

3.2 '우리 모두의 장'이라는 대안어

이제 '공통장'이라는 번역어에 동의하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쉬운 일상어로는 '우리 모두의 장(場)'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의 장'이라는 대안어는 앞선 정영신의 논문과 뒤에 소개할 구연상의 연구로부터 도출할 수 있었다.

'공통장'이라는 번역어는 『도둑이야!』(Linebaugh, 2014)를 비롯한 갈무리 출판사에서 번역된 여러 도서 속에서 보인다. 가장 널리 사용된 '공유지'라는 번역어는 물질 및 비물질 자원, 관계와 협력 등을 포괄하는 현대의 공통장을 지칭하기에는 부족한 역사적인 용어인 공통지들(communs)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공유지'는 소유의 공동성을 함축하는데, 현대의 공통장은 접속과 접근의 공동성 관점에서 조직되고 있다(Linebaugh, 2014). 또 '공유'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유경제'에서도 공동 소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함께 쓰기'나 '나눠 쓰기'를 의미한다(정영신, 2020, 244)는 점에서 '공유'는 적절한 번역어로 볼 수 없다. 요컨대 디지털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흔히 사용하는 '정보공유'라는 용어는 '공통장'의 의미 범주를 포괄할 수 없다.

'공통장'의 범주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장소에 걸쳐 있다. 같은 책에서 공통장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흔한 장소로 18곳이 기본으로 제시된다. 음식, 건강, 안전, 주거, 젠더, 생태학, 지식, 의미론, 노동계급, 존재, 알아차리기, 정치학, 법률, 경제, 역사, 종교, 시인들과 작가들, 잉글랜드 등이다(Linebaugh, 2014, 28-33). 이와 같은 장소는 '공통장'이라는 담론이 펼쳐질 수 있는 '토포이(topoi)' 즉 수사학적 장소가 된다.

온건한 자유주의적 공통장 이론가이자 연구자로 알려진 Bollier는 '공통장'이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자원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떤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적용하는 일련의 사회적 관행, 가치, 규범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패러다임으로 정의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면서 공통장은 '자원+공동체+일련의

사회적 규약이고 이 세 가지가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통합된 전체를 이룬다고 하였다(Bollier, 2014, 40). “공통의 재화와 그것을 둘러싼 집합적 주체(공통인) 그리고 공통 재화를 함께 생산하고 유지하는 활동, 즉 공통하기[화](commoning)가 어우러진 사회체계”(권범철, 2020, 22)라는 이해와 상통한다.

한국에서는 ‘공통장’을 지칭하던 일상적이고 역사적인 용어를 상실한 상태이며, ‘공통장’에는 본질적으로 ‘모두의 것’으로서의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의 성격과 ‘우리의 것’으로서의 일정한 경계를 지닌 공동체에 의한 자원 관리라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정영신, 242, 246-247). 즉 확장된 인류사회로서의 보편적인 ‘모두’와 지역적 수준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장’은 자연스럽게 ‘공공(公共)’과 ‘공공성(公共性)’의 의미망 속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커먼즈’를 지칭하던 한국의 역사 속 일상 용어를 찾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공통장’에서 출발한다면 한국 전통에서 많은 용어의 의미망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공공(公共)’과 ‘공공성(公共性)’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말 뜻매김을 시도한 두 편의 논문(구연상, 2019; 2020)에서 ‘우리 모두의 장’으로서 ‘공통장’에 관한 여러 가지 연결 고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공공(公共)’이 뜻하는 바를 정확히 안다면 오늘날 ‘공공’이라든가 ‘공공성’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여러 ‘어정쩡한’ 문제들이 줄어들 수 있다면 ‘공(公)’과 ‘사(私)’라는 동아시아 전통의 의미 체계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한다.

‘사’는 ‘자환(自環)’과 ‘자영(自營)’의 의미,

즉 ‘무엇을 제 것으로 삼거나 제 몫으로 차지하는 일’을 뜻한다. 따라서 ‘제 몫으로 품에 안은 것’이라는 의미의 ‘아름’으로 뜻매김할 수 있다(구연상, 2019, 231). 이에 대비한 ‘공’은 ‘벼름’으로 뜻매길 수 있다. ‘사’를 추구하려는 마음과 행동을 물리치는 것이면서, ‘공정’과 ‘공평’의 맥락에서 구실아치와 벼슬아치가 갖춰야 할 ‘고루 두루 나누기’이다. 곧 ‘벼름’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몫’을 사람들에게 고루 두루 나누어 주는 원리가 되는데, ‘고루’는 평분(平分)을 일컫고, ‘두루’는 대동(大同)을 말한다. 즉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게 빠짐없이(두루) 치우치지 않게(고루) 나누어주는 모습이 된다. 또한 ‘공(共)’은 ‘함께’의 뜻으로, 서로 다른 사람끼리 ‘한데 어우러져 있는 관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 앞에 맞닥뜨린 ‘어떤 일’을 ‘서로 더불어 하는’ 모습으로 뜻매김된다(구연상, 2019, 232).

더 나아가 ‘공공(公共)’은 ‘함께 벼름’은 “함께 나눔(공유)”과 비슷한 뜻이 될 수 있다. 만일 앞의 ‘공(公)’에만 중점을 둘 경우, ‘공공성’을 국가나 정부에 관계된 것으로 한정하여 인식하기 쉽다. 공설(公設), 공안(公安), 공권(公權), 공직자(公職者) 같은 말들은 공공성을 시민의 권한이 아닌 관의 권한인 양 인식하게 했다(하승우, 2014, 138). ‘공공성’을 시민의 참여와 정부의 권한이 함께 어우러진 개념으로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공(公)’이 정부와 국가의 영역이라면, ‘공(共)’은 시민사회의 영역이며 이들 모두가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공공성’이다.

이렇게 ‘공공성’을 정부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모두의 개념으로 파악했을 때 영어의 ‘퍼블릭(public)’이라는 ‘모두의 것’과 ‘외젠틀리히

카히트(Öffentlichkeit)'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의 의미와도 상통하게 된다. 구연상은 한 발 더 나아가 '공공성'을 우리말 '모두'와 접미사 '-성(性)'을 합쳐 '모두성'을 쓰자고 제안한다. '모두'에게 걸린 성질을 일컬음으로써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모두가 하는~', '모두에게 관련된~' 등까지 두루 뜻할 수 있으며, 어떤 권리가 모두에게 다 같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나타낼 수 있다(구연상, 2020, 444).

지금까지 '공공'과 '공공성'의 우리말 뜻매김 속에 나타난 '함께 베품', '함께 나눔', '모두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의 장'이라는 '공통장'의 넓은 자장이 공공성을 포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다시 '공통장'의 문제로 돌아와서 한국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과연 '공통장'을 지칭할 만한 일상 용어는 없었는지 살펴보겠다.

'공통장'의 풍부하고 다층적인 의미망과 시대사상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역사·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앞에서 영국의 역사가 피터 라인보우가 '공통장'이 펼쳐질 수 있는 18가지 대표 장소의 마지막으로 '잉글랜드'를 거명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영국에 '커먼즈'의 약탈과 '인클로저'에 대항하는 산림현장과 '마그나카르타'가 역사로부터 오늘날의 다양한 '공통장'론이 펼쳐질 수 있었다면, 한국에서도 지역공동체를 지키려는 노력에서 '공통장'의 한국적 맥락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바로 다음 소개할 연구(이영배, 2022)에서 그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국가와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지역 특유의 지식과 기술을 재가치화하여 협력적 재생산 노

동 형태를 창출하는 공동체문화의 가치 실천 양식을 '공통장'의 사유와 실천에서 중요한 방향으로 보는 이영배는 공통적인 것에서 조선적인 기억 양식으로 두레를 소환한다. 공동체문화를 매개로 삼아 '공통장'의 의미 상관성을 획득할 수 있는 두레를 커먼즈의 번역어로까지 상징하고자 한다(이영배, 2022, 201). 한국의 공동체문화 속에서 '공통장' 실천 사례를 찾자 함이며, 강원도 원주 지역의 생명평화운동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실천들, 흥천 지역의 공동체(한몸살이)를 실천하고 있는 밝은누리에서 현재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이영배, 2022, 211).

두레란 무엇인가? 두레의 연관 어휘로는 두레굿, 두레길쌈, 두레꾼, 두레농사, 두레박, 두레박틀, 두레삼, 두레상, 두레패, 두레질, 두렛날, 두렛일 등이 있다. 두레가 '윤번'의 의미를 띠거나, 결사의 의미로 도(徒), 접(接), 계(契), 사(社)의 우리말 역어이며, 농약이나 굿같은 신앙적이거나 유희적 개념과 결부되기도 한다. 실제 김매기 관행도 논바닥을 둥글게 돌아가면서 하므로 원의 개념을 연상할 수도 있다(주강현, 2006, 80).

한국의 역사 속 공동체를 뜻하는 명칭에는 보(寶), 도(徒), 접(接), 회(會), 계(契), 모꼬지 등이 있으며, 특히 금송계(禁松契)는 조선시대의 자치적 산림공유자원관리로서 '공통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배수호, 이명석, 2018).

이상의 논의로서 한국적인 맥락으로 '우리 모두의 장'이라는 용어로 논의를 펼칠 가능성 탐색을 마무리한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우리 모두의 장'의 맥락에서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새

롭게 발견 또는 발명할 것이 아니며, 그 내용 속에서 교양교육의 요건을 충분히 찾아내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다.

4. 일반교양 과목의 개발: ‘공유문화와 지역도서관’

생태사상가이자 공통장 담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Illich는, ‘그 최선의 형태를 갖춘다면 도서관은 전형적인 자율적 공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Illich, 1973, 109). 여기에서 옮긴 ‘자율적 공생의 도구(tools for conviviality)’에서 ‘conviviality’라는 단어는 에스파냐어 ‘convivencia’와 어원이 같은데, ‘우정과 환대에 근거하여 여러 종교인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다’라는 뜻이며 ‘공생공락(共生共樂)’으로 옮기기도 한다(서종석, 2020). 바로 ‘우리’라는 우정어린 공동체가 타인을 환대함으로써 ‘모두’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의 장’이 활짝 펼쳐질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우리 모두의 장’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최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듯하다. 이를 위하여 공통장의 속성 가운데에서 골라낸 다양성, 공유성, 공평성, 자율성, 지역성이라는 다섯 가지를 뼈대로 삼는다. 여기에다 공공도서관에서 펼칠 수 있는 다섯 가지 행위를 살점으로 빚어내어 일반교양과목의 형태를 구성하겠다.

4.1 다양한 문해력 체험장

리터러시라고도 일컫는 문해력 또는 문식성(文識性)은 아마도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자

중착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저 한글을 깨치기 위한 문맹 타파의 시대로부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재까지 문해력은 수없이 많은 대상을 읽어내기 위해 결합 혹은 파생되면서 끊임없이 진화해 오고 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실물장서의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해 보인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2011년부터 2015까지의 성취도가 청소년 시절을 보낸 가정의 장서량과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실증한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Sikora, Evans, & Kelly, 2019).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 환경을 경험하지 못한 성인 학습자들에게도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문해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최적의 교육기관이 된다.

공공도서관에서는 크게 보아 네 가지 문해력을 포함한 다양한 파생적 문해력 또한 체험할 수도 있고(송경진, 차미경, 2014, 233), 매체와 정보활용능력을 통합적으로 사고한 미디어정보 문해력을 연습할 수도 있다(박주현 외, 2022a; 2022b). 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는 미디어정보문해 교육과정을 2011년에 제시한 바 있으며, 새롭게 개정된 관(UNESCO, 2021)에서 교육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서든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문해력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장’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 관건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방문하도록 설득하느냐는 문제이다.

디지털의 파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끈기와 집중력이 요구되는 독서보다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충족만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의 매력에 빠져 버린 학생들이 많아 보이는 2020년

대 상황에서 문해력은 교육의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21세기 초에도 문해력은 여전히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심 문제로 남아있을 것'(Gorman, 2000, 219)이라는 진단은 옳았다. 단지 디지털 자원이 늘어나면서 좀 더 다양해졌을 뿐이다. 첫 번째 학습구성 요소로서 다양한 문해력 이해(손동현, 2019, 51)를 들 수 있다.

4.2 디지털 공유문화 실습장

미국 공공도서관의 90% 이상이 실시하고 있다(정영미, 2018, 360)는 디지털 활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장'의 시각으로 보면, 다수의 공공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자료실과 공용 와이파이 제공이 정보 공통장을 만든다는 면이 중요하다.

정보의 공통장을 기반으로 한 위키피디아,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학술논문 공개(OA)와 저작권 이용표시 허락 제도(CCL) 운동, 공공누리(<http://www.kogil.or.kr/>) 등은 오늘날 기술 리바이어던이라고도 불리는 플랫폼 빅테크 기업의 독점 속에서도 진정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애쓰는 사례들이다. 출판업계 전체를 지배하려는 듯한 아마존, 지식의 가치를 허물어 전통 매체가 기업의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전략을 펼치는 알파벳(구글), 나날이 정보 수용자의 주의력을 탐욕스럽게 뺏어가는 메타(페이스북) 등은 정교하고 교묘한 논리로 독점을 정당화하는 빅테크 기업의 대표들이다(Foer, 2017).

인간의 뇌를 깊은 사고와 성찰보다는 순간적이고 짧은 집중력과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이며 증득되도록 만드는 기업들이 정보 공통장의 문

지기가 되어 알아서 규제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Standing, 2019, 323-345). 공공도서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물 장서를 배경으로 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실을 제공하여 필요한 시간만큼만 전자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공용 컴퓨터이다 보니 시간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불필요한 관심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비용이 부담스러운 이용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시장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지식과 정보를 자연 자원과 마찬가지로 희소성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대신,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개함으로써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지식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윤리가 바로 '우리 모두의 장'으로서 지식을 알아차리는 일(Kuhlen, 2011, 35-37)이라는 언급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두 번째 학습 구성 요소로 정보활용능력 가운데 정보윤리를 들 수 있다.

4.3 차별 없는 모두의 학습장

'우리 모두의 장'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으려면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이는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정신과도 부합하는데, 만일 소외 계층의 인권을 추구하는 사회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면 공공도서관이 가진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전남희, 2021, 23). 국제도서관협회연맹에서도 '도서관 서비스

는 소외된 집단, 특별한 요구를 가진 사용자, 다국어 사용자와 지역사회 내 원주민 요구뿐만 아니라 농촌 및 도시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공공도서관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장애인, 노인, 난독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이동도서관이 필요한 지역 주민 등으로 나누어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잘 정리한 책을 출간한 바 있다(한국도서관협회 지식정보 격차해소위원회, 2019).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를 인정하기 위해 도서관이 기울이는 노력을 학습하면서 학생들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종, 성별, 성소수자, 빈부 격차의 문제까지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면서,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인식하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1992년에 핀란드에 이주해 와 처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어진 도서관 대출증을 경이롭게 기억하는 아프간 난민 출신 Nasima Razymar는 2018년에는 헬싱키의 부시장이 되어 도서관의 사회적 통합 기능을 열렬히 옹호한 바 있다(Reith-Banks, 2018). '성인은 권리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는 자율성의 표현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얻는다(Honneth, 2011, 230).'라는 인정 이론을 따른다면 도서관 자료를 마음대로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카드 발급 편의성이 사회적 소수자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커 보인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민들의 사회적 통합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의 도서관이 문화 정책을

실행하는 주요 기관이라면, 다문화주의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통합을 고려하는 서비스 등을 생각해 보고 실제 지역도서관의 서비스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지역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협력 및 교류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세 번째 학습구성요소로서 공동체 의식 및 다문화 이해 능력을 들 수 있다(손동현, 2019, 62-63).

4.4 만들기 운동 작업장

흔히 메이커스페이스라 통칭하는 만들기 작업장은 1995년 독일에서 민간이 주도한 독립적인 공간으로부터 시작하였다(김철중, 2018, 348).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2013년 국립과천과학관의 '무한상상실' 1호를 필두로 하여 아이디어 팩토리, 창업공작소,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콘텐츠코리아랩, 3D프린팅 지원센터, 미디어 창작소 등 각 정부 부처에 따라 다양하게 호명되며 전국 과학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만들기 작업장이 전반적으로 각광을 못 받는다면, 이용자인 시민의 요구를 우선하기보다 정부나 전문가 중심의 관 주도 정책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처음부터 완벽한 메이커스페이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공간과 설비를 제공한 뒤 이용자들의 반응에 따라 점차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국내의 성공 사례의 보편적 모습(이은주, 정영미, 2019, 20)"이기 때문이다.

정부 추진의 무한상상실 공간 등이 공유경제와 관련한 공유문화의 실천 장소이자 도서관에 적용이 가능한 모델임은 이미 주목받은 바 있

다(노영희, 2016). 이제는 공공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가 도입된 배경으로서 '메이커 운동 [만들기 운동]'을 '우리 모두의 장(공통장)' 안에서 이해하는 이용자가 많아지도록 하는 일에도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식 재산권 경제가 아닌 '공유지[공통장]'을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과 생산기술의 접목, 자본집약적 생산과 소비주의적 재생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만들기 운동(신현우, 이광석, 2017, 210)"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작업장에 주목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메이커 운동이 가진 '스스로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 쓴다.'라는 'DIY 정신'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획득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위험을 스스로 책임지고 감내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뜻하기도 한다(최혁규, 2019, 17)."라는 지적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신자유주의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던 자본주의가 사서의 전통적인 직무 영역을 제거하고 결국 고객 서비스만을 강조하게 할 거라는 음울한 예측(D'Angelo, 2006)의 실현을 목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자신의 것만이 아닌, 공유하며 이용해야 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익힐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다. 타인을 배려하며 모두 함께 이용할 공공의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우리 모두의 장' 속에서의 '만들기 작업장'을 이해하고 안내할 수 있는 사서들과 자율적인 만들기 공간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다 같이 중요하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 간의 협업과 의사소통 공간이 되는 '제3의 장소', 신기술을 통한 교육과 창조의 공간을 넘어서 지역 아카이브가 생성되는 공간(장윤금, 2017)"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네 번째 학습구성 요소로서 공공의식과 협동정신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들 수 있다(손동현, 2019, 62-63).

4.5 지역공동체 창조 현장

공공도서관의 최적화된 장서 기반의 다양한 지식정보 및 프로그램 서비스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면,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센터, 복합문화공간, 문화기반시설이자 커뮤니티센터, 도시의 거실, 민중의 대학이라 불릴 만하다(윤희윤, 2022, 6). 이와 같은 성격 규정은 건축가가 공공도서관을 두고 언급한바, "도서관은 시장이기도 하고, 광장이기도 하고, 도시의 거실이자 발코니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전시장이기도 하고, 소통과 담론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신승수, 임상진, 최재원, 2014, 24-25)."라는 인식과 조건부로 공명(共鳴)한다. 역시 최근 공공도서관의 건축에서 보이는 큰 변화의 방향 가운데 하나도 바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이다(곽승진, 노영희, 신재민, 2017; 구정화, 조용완, 2021, 197-198).

지역공동체를 매개하는 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도서관이 공동체 활성화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개인의 고립과 고독 같은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Klinenberg,

2018).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대유행기 동안 가상 공간 속 커뮤니티의 한계를 절감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타인과 마주할 수 있는 현장으로 달려간다. 디지털 플랫폼의 커뮤니티가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진정한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우리 모두의 장'이 추구하는 공동체는 지역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 다양하고도 자발적인 지역공동체의 발전은 목적 지향적인 국가에 틈을 만들어 '지역', '생활', '개인', '취향이 끼어들 공간을 만들어 낸다(김옥선, 2020, 120).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요구로 주로 민간 차원에서 설립되어 온 작은도서관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박영숙, 2014, 346). 1990년대 들어서도 공공도서관이 굉장히 부족했던 한국 상황에서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과 때를 같이 하여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고 형태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는 시민의 도서관 갈증을 해소해 준 중요한 의미를 띤 운동이었다(이연옥, 2002, 171-173). 2021년 현재 국내 작은도서관 수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차츰 줄어들고 있으며, 전국 공공도서관 1,208개 관보다 약 5배 많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지식 정보의 싹틔울 역할을 하고 있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민간 주도로 설립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정부와 시장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지역에 좀 더 가치를 두는 '우리 모두의 장'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사례이다. 작은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과 숙의, 실천, 참여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라는 점은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고 하향식 정책 진행 방향을 가진 공공도서관과는 차별화되는 자율적인 주민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생활 정치의 실천적 공간이 될 수 있다(하용삼, 문재원, 2011). 적어도 정치적 토론의 장으로서 크게 중요한 포용적이고 지역적인 동네의 카페, 서점 같은 노인 세대와 어린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제 3의 장소(Oldenbergh, 1999)로서 성격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 다섯 번째 학습구성 요소로서 학제적 지식 및 통합적 안목과 시각 배양을 들 수 있다(손동현, 2019, 62).

4.6 주별 수업계획서 사례

지금까지 4장에서 구성해 본 내용은 자본주의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진단에 따라 대안 혹은 보완 담론으로 부상한 '공통장'을 큰 축으로 삼았다. '공통장'은 정치경제학, 사회인류학 등 사회과학 전반을 아우르면서 새로운 존재론이자 인식론이 될 수 있는 융합 이론이다. 여기에 도서관경영론에 기초를 둔 도서관 활용능력의 교육과정을 다시 복합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는 학생들에게 세분화한 전문 분야의 위상을 전체적인 조망 아래 가늠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한 융합 교양 교과 개발의 한 사례(손동현, 2019, 115-141)가 될 수 있다.

아래에 예시한 주별 계획서는 2023년 2학기 과목의 사례이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교수자의 상황에 따라 변형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다. 학습 목표는, "1) '우리 모두의 장'으로서 공통장 개념을 이해한다. 2) 지역문화의 공통장으로서 공공도서관을 인식하고 이용할

〈표 1〉 ‘공유문화와 지역도서관’ 주별 수업 계획표

구분	주별 학습 내용	비고(주요 학습자료)
1주차	• 과목 소개 및 안내	윤송현(2022)
2주차	• I. ‘모두성’과 ‘우리 모두의 장’ - 1) 모두성 개념: 공공과 공공성의 이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하승우(2014)
3주차	• I-2) ‘우리 모두의 장’ 개념: 공통장, 공유, 공유지, 커먼즈, 공동인과 공통자	Bollier(2014)
4주차	• II. 문해력을 우리 모두의 장으로 - 1) 문해 문식, 혹은 리터러시	조병영(2021)
5주차	• II-2) 지역도서관 탐방 - 다양한 문해력의 학습장	박소희(2019)
6주차	• III. 디지털 지식정보를 우리 모두의 장으로 - 1) 우리 모두의 협치와 관리자 정신	이광석(2020)
7주차	• III-2) 지역도서관 실습 - 학술논문 검색, 디지털 정보공유 자원 탐색	김기태(2018)
8주차	• 중간 평가	
9주차	• IV. 평등과 포용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장 - 1) 차별을 극복하고 모두를 인정하려는 공통화 과정	Linebaugh(2014)
10주차	• IV-2) 지역도서관 탐방(1) -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사례	한국도서관협회 지식격차해소위원회 편(2019)
11주차	• V. 우리 모두의 장에서의 협업 생산 - 만들기 운동과 동료 협업 생산	이광석(2021)
12주차	• V-2) 지역도서관 탐방(2) - 미디어 창작소, 메이커스페이스	크리킨디센터 전환교육연구소(2019)
13주차	• VI. 지역을 되살리는 공동체 의식 공통화 - 지역공동체 협치와 사회적 경제	현진권(2021)
14주차	• VI-2) 지역도서관 탐방(3) - 지역공동체 거점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찾아보기	신남희(2022)
15주차	• 기말 평가 - 모듈별 협동 과제 제출 및 발표	

수 있다. 3)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하여 문화컨텐츠를 제작해 본다.”로 설정하였다. 주교재의 경우는 일반교양과목의 성격에 맞도록 학생들이 비교적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에세이 형식의 책자(윤송현, 2022)를 선택해 보았다.

5. 결론: 지역의 위기와 희망의 발견

이 논문은 ‘공통장’ 안에서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그 내용을 일반교양 과목으로

구성해 본 시도의 결과물이다. 이 과목은 연구자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개설이 허가되어 2023년 2학기부터 강의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실제적인 교육 내용 기술이라기보다 설계의 기초작업으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 실제 강의를 이루어지고 난 뒤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으로는 ‘commons’의 번역어 문제를 제기하고 ‘공통장’이라는 번역어

에 동의하면서 ‘우리 모두의 장’이라는 대안적 역어를 제시하였다. 국내에 ‘커먼즈’라는 용어는 의미망이 축소되거나 고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주로 도서관 공간 설계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은 ‘the Commonwealth(영연방 국가)’도 아니고, ‘House of Commons(하원)’도 없으며, 구획 짓기 이전의 ‘the commons(공유지)’를 보장했던 ‘마그나 카르타’도 없었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상식을 지닌 다중 지성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말 번역어의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도서관 또한 특정 전문 분야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한 공통장의 영역에 해당한다. 공공도서관에서 마주하는 광활한 지식의 서가 앞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뿐 아니라 타 분야의 중요성도 인정하는 동시에 학제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더 넓은 시야의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중 지성을 교양교육

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사서보다 먼저 지역 중심지에 도서관 설립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를 끌어낼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과 상부상조하는 대학들 역시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전파할 수 있을 때 도서관 관련 교양과목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후속 연구 과제로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바라본 공공도서관과 공통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가치 비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가진 한계는 도서관 예찬으로도 유명한 작가(Gaiman, 2013)의 표현을 빌려 제시하고 싶다. 연구자는 편향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독서와 도서관, 그리고 사서에 편향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모든 오류는 인문학 도서에 편향한 독자이자 인문적 글쓰기에 편향된 연구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참 고 문 헌

- 곽승진, 노영희, 신재민 (2017).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공간 구성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7-25. <http://doi.org/10.14699/kbiblia.2017.28.3.007>
- 구연상 (2019). 공공(公共)의 낱말 뜻 분석. 헤겔연구, 46, 207-236. <http://doi.org/10.17281/khegel.2019..46.009>
- 구연상 (2020). 공공성(公共性)의 우리말 뜻 매김.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96, 429-450. <http://doi.org/10.15841/kspew..96.202006.429>
- 구정화, 조용완 (2021). 우수 사례 통해 본 공공도서관 건축 경향 분석: 북미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181-208. <http://doi.org/10.4275/KSLIS.2021.55.1.18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 2. 20). 작은도서관 현황.

출처: <https://www.libsta.go.kr/statistics/small/main>

권범철 (2020).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101, 17-49.

김기태 (2018).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 서울: 맥스미디어.

김옥선 (2020). 공동체의 잔해 위에서 나는 누구와 나의 삶을 이야기할 것인가. 서울: 당대.

김철중 (2018). 공(共)-창조적 장소로서의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3(5), 346-352. <http://doi.org/10.35216/kisd.2018.13.5.345>

노영희 (2016). 공유경제의 도서관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3), 75-98.
<http://doi.org/10.14699/kbiblia.2016.27.3.075>

박소희 (2019). 여기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서울: 학교도서관저널.

박영숙 (2014). 이용자를 왕처럼 모시진 않겠습니다: 도서관, 시민이 탄생하는 제3의 공간. 서울: 알마.

박주현, 김지현, 이명규, 이지수, Jonathan M. Hollister, 이지원 (2022a).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제도 및 정책 분석: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3), 315-341.
<http://doi.org/10.16981/kliiss.53.3.202209.315>

박주현, 이명규, 김지현, 강봉숙, 이지수, 심효정, Jonathan M. Hollister (2022b). 공공도서관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 개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3), 335-362.
<http://doi.org/10.4275/KSLIS.2022.56.3.335>

배수호, 이명석 (2018). 산림공유자원관리로서 금송계 연구: 公有와 私有를 넘어서 共有의 지혜로. 아산재단 연구총서, 434. 서울: 집문당.

서종석 (2020). 브리야 사바랭의 『미각 생리학』에 나타난 '공생공락'의 개념. 프랑스학연구, 91, 162-181.

손동현 (2019). 대학교양교육론. 서울: 철학과현실사.

송경진, 차미경 (2014) 문헌정보학과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있어서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215-240. <http://doi.org/10.4275/KSLIS.2014.48.4.215>

신남희 (2022). 다 함께 행복한 공공도서관: 지식과 문화의 공공성을 위한 길 찾기. 서울: 한티재.

신승수, 임상진, 최재원 (2014). 슈퍼 라이브러리: 공공도서관을 통해 본 공공 건축, 공공 공간,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 서울: 사람의무늬.

신현우, 이광석 (2017). 한국의 메이커 문화 동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가발전 메이커 담론과 일상 문화 속 저항 사이에서. 인문콘텐츠, 45, 207-231.
<http://doi.org/10.18658/humancon.2017.06.45.207>

윤송현 (2022).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서울: 학교도서관저널.

윤희윤 (2022).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격차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5-25.

- <http://doi.org/10.4275/KSLIS.2022.56.1.005>
- 이광석 (2020). 디지털의 배신: 플랫폼 자본주의와 테크놀로지의 유혹. 서울: 인물과 사상사.
- 이광석 (2021). 피지털 커먼즈: 플랫폼 인클로저에 맞서는 기술생태 공동장. 서울: 갈무리.
- 이상복 (2021). 진보 도서관학 운동: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이상복, 이정미, 곽철완, 박현주. (2009). 공공도서관의 인포메이션커먼즈(Information Commons) 적용기본구상.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91-108.
- 이연옥 (2002).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이영배 (2022). 공동체문화와 커먼즈, 가치실천 양식들. 비교민속학, 75, 187-215.
<http://doi.org/10.38078/ACF.2022.4.75.187>
- 이은주, 정영미 (2019). 대학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223-247. <http://doi.org/10.16981/kliss.50.4.201912.223>
- 임형연 (2013). 일본의 도서관 역할변화와 정보공유지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서비스모델.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8(1), 95-109.
- 임형연 (2014). 도서관 정보커먼즈에서 러닝커먼즈로의 진화: 일본 공공도서관의 러닝커먼즈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441-462.
<http://doi.org/10.16981/kliss.45.3.201409.441>
- 임형연 (2015). 일본 도서관의 러닝커먼즈화에 따른 독서지도사 활용에 관한 연구: 독서지도사 양성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71-88.
<http://doi.org/10.16981/kliss.46.3.201509.71>
- 임형연 (2020). 일본 지역 활성화와 평생학습: 공공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53, 465-484.
<http://doi.org/10.15755/jfs.2020..53.465>
- 임형연 (2021). 일본 공공도서관의 지역공동체 형성 비전과 진화. 외국학연구, 58, 571-600.
<http://doi.org/10.15755/jfs.2021..58.571>
- 임형연 (2022). 일본 공공도서관의 미래: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친화형 러닝커먼즈화.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7(3), 73-87. <http://doi.org/10.37704/KJJE.2022.27.3.73>
- 장윤금 (2017).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구성 및 프로그램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289-306. <http://doi.org/10.4275/KSLIS.2017.51.1.289>
- 전남희 (2021). 공공도서관과 사회정의: 다문화아동의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9(2), 1-32. <http://doi.org/10.34221/KJPS.2021.29.2.1>
- 정미경, 남태우 (2007). 도서관 통합서비스 모델로서의 Information Commons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347-363.
- 정영미 (2018). 미국 공공도서관의 성인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

- 회지, 52(1), 359-380. <http://doi.org/10.4275/KSLIS.2018.52.1.359>
- 정영신 (2020).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23(4), 237-259.
DOI: 10.21740/jas.2020.11.23.4.237
- 정재영 (2007a). 대학도서관의 Information Commons(정보공유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67-87. <http://doi.org/10.16981/kliss.38.1.200703.67>
- 정재영 (2007b). 대학도서관의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 적용 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201-221. <http://doi.org/10.16981/kliss.38.3.200709.201>
- 정재영 (2008).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의 도입을 통한 학교도서관 공간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267-289.
<http://doi.org/10.16981/kliss.39.2.200806.267>
- 정재영 (2009). Information Commons기반 하이브리드(Hybrid)도서관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59-73.
- 정진수 (2016). 디지털 시대의 학습과 정보 - 학습 코먼스로서 학교도서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353-375. <http://doi.org/10.4275/KSLIS.2016.50.1.353>
- 조병영 (2021).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서울: 쌤앤파커스.
- 조정환 (2022). 대안 페러다임의 전망: 인지자본주의적 포획에 맞서는 공통장 운동과 다중의 절대민주주의적 섭정.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4, 7-36. <http://doi.org/10.52955/JCCF.2022.09.4.7>
- 주강현 (2006). 두레: 농민의 역사. 파주: 들녘.
- 최혁규 (2019). '메이커 운동'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제작문화를 둘러싼 담론적 지형을 살피며. *크리킨디센터 전환교육연구소 편. 만드는 사람들: 삶의 기술, 일곱 번째*. 서울: 교육공동체 벗, 10-19.
- 크리킨디센터 전환교육연구소 편 (2019). *만드는 사람들: 삶의 기술, 일곱 번째*. 서울: 교육공동체 벗.
- 하승우 (2014). 공공성. *Vita Activa 개념사*, 30. 서울: 책세상.
- 하용삼, 문재원 (2011). 공공성과 로컬리티의 재구성: 공적영역으로서 주민도서관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66(4), 421-451.
-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편 (2010). *한국문헌정보학사전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지식정보격차해소위원회 편 (2019). *모두를 위한 도서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현진권 (2021). *도서관 민주주의*. 서울: 살림.
- 황현산 (2018). *사소한 부탁*. 파주: 난다.
- Bollier, D. (2014). *Think Like a Commoner: A Short Introduction to the Life of the Commons*.
- 배수현 옮김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새로운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유인을 위한 안내서*. 서울: 갈무리.

- D'Angelo, E. (2006). *Barbarians at the Gates of the Public Library: How Postmodern Consumer Capitalism Threatens Democracy, Civil Education and the Public Good*. 차미경, 송경진 옮김 (2011). *공공도서관 문 앞의 야만인들*. 서울: 일월서각.
- Federici, S. (2004). *Caliban and the Witch: Women, The Body, and Primitive Accumulation*. 황성원, 김민철 옮김 (2011). *캘리번과 마녀*. 아우또노미아총서, 31. 서울: 갈무리.
- Foer, F. (2017). *World Without Mind: The Existential Threat of Big Tech*. 이승연, 박상현 옮김 (2019). *생각을 빼앗긴 세계: 거대 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가*. 서울: 반비.
- Gaiman, N. (2013). *Why Our Future Depends on Libraries, Reading and Dreaming*. In *Art Matters*. 유소영 옮김 (2019). *닐 게이먼을 만든 생각*. 서울: 생각정거장.
- Gorman, M. (2000). *Our Enduring Values: Librarianship in the 21st Century*. 이재환 옮김 (2010).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직의 의미*. 대구: 태일사.
- Hess, C. & Ostrom, E. (2007). *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 From Theory to Practice*. 김민주, 송희령 옮김 (2010). *지식의 공유: 폐쇄성을 넘어 '자원으로서의 지식'을 나누다*. 서울: 타임북스.
- Honneth, A. (1992). *Kampf Um Anerkennung*. 문성훈, 이현재 옮김 (2011). *인정투쟁*. 고양: 사월의책.
- Illich, I. (1973). *Tools for Conviviality*. 이한 옮김 (2004). *성장을 멈춰라!: 자율적 공생을 위한 도구*. 이반 일리히 전집, 4. 서울: 미토.
- Klinenberg, E. (2018). *Places for the People*. 서종민 옮김.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불평등과 고립을 넘어서는 연결망의 힘*.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Kuhlen, R. (2011). *Ethical foundations of knowledge as a commons*.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23-40. <http://doi.org/10.4275/KSLIS.2011.45.2.023>
- Linebaugh, P. (2014). *Stop, Thief!: The Commons, Enclosures, and Resistance*. 서창현 옮김 (2021). *도둑이야!: 공동장, 인클로저 그리고 저항*. 아우또노미아총서, 75. 서울: 갈무리.
- Oldenburg, R. (1999). *The Great Good Place*. 김보영 옮김 (2019). *제3의 장소: 작은 카페, 서점, 동네 술집까지 삶을 떠받치는 어울림의 장소를 복원하기*. 서울: 풀빛.
- Shera, J. H. (1970). *Sociological Foundations of Librarianship*. 윤영 옮김 (1984).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 서울: 구미무역(주)출판부.
- Standing, G. (2019). *Plunder Of The Commons*. 안효상 옮김 (2021). *공유지의 약탈: 새로운 공유시대를 위한 선언*. 파주: 창비.
- Bollier, D. (2021). *The Commoner's Catalog For Changemaking: Tools For The Transitions Ahead*. Massachusetts: Schumacher Center.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243-1248.
<https://doi.org/10.1126/science.162.3859.1243>
- Hyde, L. (2011). *Common As Air: Revolution, Art, and Ownership*.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Reith-Banks, T. (2018, May 15). The borrowers: why Finland's cities are havens for library lovers. *The Guardians*. Available: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8/may/15/why-finlands-cities-are-havens-for-library-lovers-oodi-helsinki>
- Sikora, J., Evans, M. D. R., & Kelley, J. (2019). Scholarly culture: how books in adolescence adult literacy, numeracy and technology skills in 31 societies. *Social Science Research*, 77, 1-15. <https://doi.org/10.1016/j.ssresearch.2018.10.003>
- UNESCO (2021). Alton Grizzle, Carolyn Wilson, Dorothy Gordon ed. *Media and information literate citizens: think critically, click wisely!* Paris: UNESCO. Availabl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7068?posInSet=6&queryId=877da0a7-2609-4844-909b-50d2c3ce552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Suho & Lee, Myungsuk (2018). *A Study on Geumsong-gye as Forest Sharing Resource Management*. Seoul: Jipmundang.
- Bollier, D. (2014). *Think Like a Commoner: A Short Introduction to the Life of the Commoners*. British Columbia: New Society Publishers.
- Chang, Yunkeum (2017). A study on the concepts and programs of 'makerspaces' at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1), 289-306. <http://doi.org/10.4275/KSLIS.2017.51.1.289>
- Cho, Byeong Young (2021). *Literacy Environment*. Seoul: Sam and Parker's.
- Choi, hyeok gyu (2019). What can I say as a 'maker movement'? KURIKINDI Center. *Makers: Life's art*, 7th. Seoul: communebut. 10-19.
- Chung, Jae-Young (2007a).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commons to the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1), 67-87. <http://doi.org/10.16981/kliss.38.1.200703.67>
- Chung, Jae-Young (2007b). A study on the application model of information commons in the

-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3), 201-221. <http://doi.org/10.16981/kliss.38.3.200709.201>
- Chung, Jae-Young (2008).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school library space by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common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267-289. <http://doi.org/10.16981/kliss.39.2.200806.267>
- Chung, Jae-Young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hybrid library model based on information comm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2), 59-73.
- Chung, Jin Soo (2016). Learning with information in digital age: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as learning common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1), 353-375. <http://doi.org/10.4275/KSLIS.2016.50.1.353>
- Closing the Knowledge Information Gap Committee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9). *Libraries Are for Everyone*. Seoul: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 D'Angelo, E. (2006). *Barbarians at the Gates of the Public Library: How Postmodern Consumer Capitalism Threatens Democracy, Civil Education and the Public Good*. Duluth, Minn.: Library Juice Press.
- Federici, S. (2004). *Caliban and the Witch: Women, The Body, and Primitive Accumulation*. New York: Autonomedia.
- Foer, F. (2017). *World Without Mind: The Existential Threat of Big Tech*. New York: Penguin Press.
- Gaiman, N. (2013). Why Our Future Depends on Libraries, Reading and Dreaming. In *The View from the Cheap Seats: Selected Nonfiction*. New York: William Morrow.
- Gorman, M. (2000). *Our Enduring Values: Librarianship in the 21st Centur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Gu, Yeon Sang (2019).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public(公共). *Hegel-Studien (Hegel-Yeongu)*, 46, 207-236. <http://doi.org/10.17281/khegel.2019.46.009>
- Gu, Yeon-sang (2020). Defining publicness (公共性) in Korean.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96, 429-450. <http://doi.org/10.15841/kspew.96.202006.429>
- Ha, Seung Woo (2014). *Publicness*. Seoul: Bookworld.
- Ha, Young-Sam & Mun, Jae-won (2011). The public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locality: in the center of the resident library as the public space.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66(4), 421-451.
- Hess, C. & Ostrom, E. ed. (2007). *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 From Theory*

- to Practice. Massachusetts: MIT Press.
- Honneth, A. (1992). *Kampf Um Anerkenn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 Hwang, HieonSann (2018). *A Trifling Request*. Paju: Nanda.
- Hyun, Jin Kwon (2021). *Library Democracy*. Seoul: Salim.
- Illich, I. (1973/2009). *Tools for Conviviality*. London:Marion Boyars Publishers.
- Jeon, Nam-Hee (2021). Public library and social justice: reading guidance for multicultural children.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2), 1-32.
<http://doi.org/10.34221/KJPS.2021.29.2.1>
- Jeong, Young Sin (2020). Issues of the commons theory in South Korea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3(4), 237-259.
<http://doi.org/10.21740/jas.2020.11.23.4.237>
- Joe, Jeong-hwan (2022). The prospects of alternative paradigm: the commons movement against cognitive capitalist enclosure and the absolute democratic regency of multitudes. *Journal of Community Culture and Folklore*, 4, 7-36.
<http://doi.org/10.52955/JCCF.2022.09.4.7>
- Joo, Kang Huyn (2006). *History of Farmers: Dure*. Seoul: Deulnyuk.
- Jung, Mi-Kyung & Nam, Tae-Woo (2007). A study of information commons as model of library integrated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4), 347-363.
- Jung, Young mi (2018). A study on digital literacy education for adults in US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359-380.
<http://doi.org/10.4275/KSLIS.2018.52.1.359>
- Kim, Cheol-joong (2018). A study on public library makerspace as a co-creative pla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3(5), 345-352.
<http://doi.org/10.35216/kisd.2018.13.5.345>
- Kim, Ki-Tae (2018) *Copyright Class*. Seoul: Maxmedia.
- Kim, Ok Sun (2020). *Who will I Talk about My Life with on the Rubble of the Community*. Seoul: Dangdae.
- Klinenberg, E. (2018). *Places for the People*. New York: Crown.
- Koo, Joung Hwa & Cho, Yong Wan (2021). Trends in public library design and construction through reviewing the excellent cases of the awarded library buildings: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in North Americ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181-208. <http://doi.org/10.4275/KSLIS.2021.55.1.181>

- Kuhlen, R. (2011). Ethical foundations of knowledge as a common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23-40.
<http://doi.org/10.4275/KSLIS.2011.45.2.023>
- Kurikindi Korea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Center (2019). *Makers: Life's art*, 7th. Seoul: communebut.
- Kwak, Seung-Jin, Noh, Younghee, & Shin, Jaemin (2017).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of library as a multicultural institu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7-25. <http://doi.org/10.14699/kbiblia.2017.28.3.007>
- Kwon, Beom Chul (2020). The theoretical topography of commons. *Culture/Science*, 101, 17-49.
- Lee, Eun Ju & Jung, Young mi (2019).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makerspace in Korea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223-247. <http://doi.org/10.16981/kliss.50.4.201912.223>
- Lee, Kwang-suk (2020). *Against Techno-Fetishism*. Seoul: People and Thought.
- Lee, Kwang-suk (2021). *Phgital Commons*. Seoul: galmuri.
- Lee, Sang Bok (2021). *Progressive Library Movement: Social Responsibility of Library*. Seoul: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Sang Bok, Lee, Jeongmi, Kwak, Chul Wan, & Park, Hyun-Joo (2009). Basic ideas on the application of information commons in the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2), 91-108.
- Lee, Yeon Ok (2002). *History of The Korean Public Library Movement*. Seoul: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Young-Bae (2022). Community culture, commons, and patterns of value practices. *Asian Comparative Folklore*, 75, 187-215. <http://doi.org/10.38078/ACF.2022.4.75.187>
- Library Terminology Committee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vised ed.)*. Seoul: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im, Hyoung-Yeon (2013). Changes in the role of libraries in Japan and the service model of libraries as information commons. *Korean Journal of the Japan Education*, 18(1), 95-109.
- Lim, Hyoung-Yeon (2014). Evolution of public libraries from information commons to learning commons: the cases of Jap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441-462. <http://doi.org/10.16981/kliss.45.3.201409.441>
- Lim, Hyoung-Yeon (2015). A study on the reading instruction qualification system for learning commons of library in Japan: focusing on reading instructor training case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3), 71-88.

- [http://doi.org/ 10.16981/kliss.46.3.201509.71](http://doi.org/10.16981/kliss.46.3.201509.71)
- Lim, Hyoung-Yeon (2020). Local revitalization and lifelong learning in Japan: focusing on the case of public libraries.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53, 465-484.
<http://doi.org/10.15755/jfs.2020..53.465>
- Lim, Hyoung-Yeon (2021). The vision of public libraries for community formation and its evolution.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58, 571-600.
<http://doi.org/10.15755/jfs.2021..58.571>
- Lim, Hyoung-Yeon (2022). The future of public libraries in Japan: focused on resident-friendly learning commons. *Korean Journal of the Japan Education*, 27(3), 73-87.
<http://doi.org/10.37704/KJJE.2022.27.3.73>
- Linebaugh, P. (2014). *Stop, Thief!: The Commons, Enclosures, and Resistance*. Oakland, California: PM Press.
-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2023. 2. 20). Small Library Status. Available:
<https://www.libsta.go.kr/statistics/small/main>
- Noh, Younghee (2016). A study on applying the sharing economy to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3), 75-98.
<http://doi.org/10.14699/kbiblia.2016.27.3.075>
- Oldenburg, R. (1999). *The Great Good Place*. New York: Marlowe.
- Park, Juhyeon, Kim, Ji-Hyun, Lee, Myounggyu, Lee, Jisue, Jonathan M. Hollister, & Lee, Ji Won (2022a). Analysis of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system, and policies: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3), 315-341. <http://doi.org/10.16981/kliss.53.3.202209.315>
- Park, Juhyeon, Lee, Myounggyu, Kim, Ji-Hyun, Kang, Bng-suk, Lee, Jisue, Sim, Hyojung, & Jonathan M. Hollister (2022b). The development of a media literacy educational model for public librar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3), 335-362. <http://doi.org/10.4275/KSLIS.2022.56.3.335>
- Park, So Hee (2019). *This is a Small Library*. Seoul: School library journal.
- Park, Young Sook (2014). *I Won't Treat Users Like Kings*. Seoul: Alma.
- Shera, J. H. (1970). *Sociological Foundations of Librarianship*. Bombay: Asia Pub. House.
- Shin, Hyunwoo & Lee, Kwang Suk (2017). A critical review for Korea's maker culture trends: between national development discourse of maker and possibilities in the everyday culture. *Humanities Contents*, 45, 207-231. <http://doi.org/10.18658/humancon.2017.06.45.207>
- Shin, seung su, Lim, sang-jin, & Choi, Jae-won (2014). *Super Library: The Story of Public*

- Buildings, Public Space, Publicness through Seen by Public Libraries.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 Sin, Nam Hee (2022). Happy Public Library Together. Seoul: Hantijae.
- Soh, Jong-Seok (2020). La notion de «convivialité» dans la Physiologie du gout de Brillat-Savarin. REVUE D'ETUDES FRANCO-COREENNES, 91, 162-181.
- Son, Dong Hyun (2019). Theory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Seoul: Philculture.
- Song, Kyeong-Jin & Cha, Mikyeong (2014). A study on the concept of literac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in public library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215-240.
<http://doi.org/10.4275/KSLIS.2014.48.4.215>
- Standing, G. (2019). Plunder of the Commons: a Manifesto for Sharing Public Wealth. [London]: Pelican.
- Yoon, Hee-Yoon (2022). A study on the gap analysis of public libraries in Gyeongbuk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1), 5-25.
<http://doi.org/10.4275/KSLIS.2022.56.1.005>
- Yoon, song-hyun (2022). All things Started from Libraries. Seoul: School Library Journal.